



향만 남은 사진

울산여자상업고 1-7 김지현

향이 난다
사진에서 향이 난다.
그때 그 느낌에 취하고 싶어
사진 속 온기를 느낀다.

몰랐을까
그때는 왜 몰랐을까
따뜻한 사진 속 느껴지는
나와
땀별 속 붉게 타버린 피부
긁은 일로 통통 부은 손으로
나를 감싸안으신 어머니

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모습이
그리움만 남긴다.
향기만 스쳐간다.

사진 속 이에게 말하고 싶다.
따뜻함의 색이 변치 말아 달라고.

